



## 한국포장기계 대상

# 독창적 기술개발로 포장기계산업 선진화

## 레토르트 급대식자동포장기 기술인정, 수출확대

이 일 해 / (주)리팩 대표이사

**제** 4회 한국포장기계대상 기술 개발부문으로 선정된 (주)리팩 이일해 대표이사는 “황무지 같았던 36년전 자동포장기계 분야에 뛰어들었던 때가 생각나 감회가 새롭다”며 “기술개발부문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로 포장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밴드셀러, 진공포장기, 자동계량기, 자동포장기 등을 생산·판매, 국내외 13,000여대를 현재까지 설치했으며 국내 8개 대리점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에 해외대리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60년대 후반, 포장기계업계는 기술도 미숙할뿐 아니라 시장 역시 일부 제과회사를 제외하면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금번 기술개발부문 수상을 하게 된 (주)리팩의 레토르트 급대식자동진공포장기는 현재 국내 뿐만이 아닌 포장선진국가에서도 기술을 인정, 수출산업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일해 사장은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포장기계편람 서문을 읽고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이 기계는 수입대체와 경쟁력 효과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다품종소량포장에 대응하는 기종으로 고압 물청소가 가능하다.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진공포장하므로 별도의 살균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레토르트 식품의 맛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5℃ 이상의 핫필(hot fill)가능 구조로 설계됐다.

“자동포장기가 상품의 종류만큼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공감이 가는 그 구절을 읽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자신감과 장인정신으로 한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수업체들이 (주)리팩의 자동포장기로 포장된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는 이일해 사장. 그는 “끓

이후 이일해 사장은 낙후된 포장기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개발노력을 거듭, 독창적인 전문포장기계 개발 및 생산의 풍부한 경험을 토

## 식품 및 식품기계 연합 통한 국내 포장전시회 세계화 기대

임없이 기술혁신하여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에게 봉사하며 리팩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성장과 번영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고객만족의 경영 방침으로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일해 사장은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그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원을 적극 발굴하고 사원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재양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일해 사장은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내 포장전시 산업이 세계화 되지 못하고 점점 국내 전시회화 돼가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내 전시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포장기계뿐 아닌 식품 및 식품기계와 연합해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어 유치에 위해 일본의 JAPAN PACK, TOKYO PACK이 열리는 비슷한 시기에 국내 전시회를 개최한다면 바이어의 유치가 더 쉬울 것입니다." 덧붙여 이 사장은 TV 및 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 포장 전시회에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포장이란 말 자체가 생소하던 3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술 및 품질면에서 성장한 포장기계업계를 바라보면 뿌듯함을 느낀다는 이일해 사장. 그는 국내 포장기계업체간에 같은 품목으로 과당경쟁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가져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다른 품목으로 방향 전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품종생산보다는 한 종류라도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한 포장기계업계에 팽배하고 있는 불법카피(copy)를 말하면서 "모양은 모방할 수 있지만 경험은 모방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험미숙에서 나온 제품 카피는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독창적 아이템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자고 독려했다.

올해 이일해 사장은 122억 매출이라는 목표와 함께 미국, 동남아, 일본, 유럽 등으로의 시장확대를 위해 가격대비 최상의 품질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우수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LEEPACK In THE WORLD'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는 이일해 사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